

연결어미 ‘-ㄴ데’와 접속부사 ‘그런데’의 사용 양상에 대한 대조적 연구

오 재 연 · 이 선 응*

(경희대학교 석사과정) · (경희대학교 교수)

〈 차 례 〉

- | | |
|-------------------------------------|-------------------------|
| 1. 서론 | 3. ‘-ㄴ데’와 ‘그런데’의 접속의 영역 |
| 2. ‘-ㄴ데’와 ‘그런데’의 용법에 따른
사용 양상 대조 | 에 따른 사용 양상 대조 |
| | 4. 결론 |
| | <참고문헌> |

〈국문 요약〉

본고는 연결어미 ‘-ㄴ데’와 접속부사 ‘그런데’의 사용 양상을 ‘용법’과 ‘접속의 영역’을 기준으로 대조해 보고, 이를 통해 ‘-ㄴ데’와 ‘그런데’가 나타내는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ㄴ데’의 용법을 [이유], [대조], [양보], [배경 제시]로 나누고, 각 용법의 예문을 ‘그런데’를 사용하여 환언해 본 결과, [이유]와 일부 [배경 제시] 용법에서는 ‘그런데’의 사용이 부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는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국면의 전환이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유]와 일부 [배경 제시]의 문장에서는 국면의 전환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Sweetser(1990)의 논의에 기대어 ‘-ㄴ데’에 의한 접속을 의미 영역, 인식 영역, 화행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접속된 문장들을 ‘그런데’를 사용하여 환언해 본 결과, 내용 영역에서의 접속에서는 ‘그런데’의 사용이 자연스럽지만, 화행 영역에서의 접속에서는 명령이나 제안 화행인 후행절 앞에서 ‘그런데’의 사용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연결어미, 접속부사, -ㄴ데, 그런데, 용법, 접속의 영역, 국면의 전환

* 오재연 제1저자, 이선웅 교신저자

1. 서론

본고는 연결어미 ‘-ㄴ데’¹⁾와 접속부사 ‘그런데’의 사용 양상을 ‘용법’과 ‘접속의 영역’을 기준으로 대조해 보고, 이를 통해 ‘-ㄴ데’와 ‘그런데’가 나타내는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착어인 한국어는 절과 절을 접속하면서 두 절 사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려고 할 때, 선행절 용언에 연결어미를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1) 코로나 이전에는 장사가 잘됐는데 지금은 먹고살기도 힘들다.

(1)은 선행절 용언 ‘잘됐-’에 연결어미 ‘-ㄴ데’를 결합하여 선행절과 후행절을 접속하고, 두 절 사이에 특별한 의미 관계(여기서는 ‘대조’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연결어미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영어의 접속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접속부사를 사용하여 두 절을 접속할 수 있다.²⁾

(2) 코로나 이전에는 장사가 잘됐다. 그런데 지금은 먹고살기도 힘들다.

(2)는 접속부사 ‘그런데’가 선행절과 후행절³⁾을 접속해 주고 있다. 연

1) 본고는 엄밀한 형태론 논문이 아니므로 ‘-ㄴ데’를 편의상 형용사의 ‘-ㄴ데’와 동사의 ‘-는데’를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2) 한국어의 접속부사는 연결어미와는 달리 의존형태소가 아니므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이에 독립적으로 위치한다는 점에서 영어의 접속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3) 이때의 선행절과 후행절은 접속부사의 앞뒤에 있는 각각의 독립된 절(문장)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연결어미로 이어진 선·후행절과 비교해서 논의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행문, 후행문’이 아니라 ‘선행절, 후행절’로 부르기로 한다. ‘절’을 ‘문장’보다 작은 단위로 보아 문장에 포함된 것만을 ‘절’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1)에서는 절이었던 ‘지금은 먹고 살기도 힘들다.’가 (2)에서는 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어+서술어’의 구조를 가지는 모든 것은 원칙적으

결어미로 두 절을 접속할 때는 두 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묶여 복문을 이루지만, (2)와 같이 접속부사를 사용해서 바꾸어 쓰면 두 절이 각각 분리되어 독립된 문장이 된다. 이때 접속부사는 연결어미와 마찬가지로 두 절 사이에서 특별한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

접속부사 ‘그런데’는 용언 ‘그러하-’에 연결어미 ‘-ㄴ데’가 결합하여 하나의 어휘로 굳어진 것이므로, ‘그런데’의 형태와 의미는 ‘-ㄴ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ㄴ데’로 접속된 문장은 ‘그런데’를 사용하여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 (3) ㄱ. 원유 가격이 하락했는데 기름값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
ㄴ. 남자한테 참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다. (○○식품 광고 카피)

- (3)′ ㄱ. 원유 가격이 하락했다. 그런데 기름값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
ㄴ. 남자한테 참 좋다. 그런데 표현할 방법이 없다.

(3)은 연결어미 ‘-ㄴ데’를 사용해서 두 절을 접속한 문장이고, 이를 접속부사 ‘그런데’를 사용하여 바꾸어 쓴 것이 (3)′이다. (3)과 (3)′은 선행절과 후행절을 잇는 접속 장치가 서로 다르지만, 양쪽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 주고 있다.⁴⁾

그런데 연결어미 ‘-ㄴ데’로 접속된 문장 중에는 ‘그런데’를 사용하여 바꿔 쓰면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있다.

- (4) ㄱ. 열이 많이 나는데 PCR 검사를 받아 보는 게 어떠세요?
ㄴ.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

로 ‘절’이고, 종결어미가 결합된 완결된 통사 단위를 일반적으로 ‘문장’이라고 한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구본관 외 2015:206 참조). 단문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절’이자 ‘문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복문은 둘 이상의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문장’이라고만 부를 수 있다.

- 4) 물론 (3)과 (3)′의 의미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 (4)′ ㄱ. *열이 많이 나요. 그런데 PCR 검사를 받아 보는 게 어떠세요?⁵⁾
ㄴ. *날씨가 춥다. 그런데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

‘-ㄴ데’가 사용된 (4)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런데’가 사용된 (4)′은 두 절의 의미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4)′에서는 ‘그런데’보다 ‘그러니까’를 사용해야 두 절의 의미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

(3)′은 ‘그런데’를 사용하여 접속해도 자연스럽지만 (4)′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고는 ‘-ㄴ데’와 ‘그런데’가 나타내는 의미가 용법에 따라, 그리고 Sweetser(1990)에서 제시된 바 있는 ‘접속의 영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2. ‘-ㄴ데’와 ‘그런데’의 용법에 따른 사용 양상 대조

2.1. 연결어미의 용법에 관한 기존의 연구

연결어미 ‘-ㄴ데’는 흔히 [배경 제시]⁶⁾와 [대조]의 용법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연결어미들에 비해서 용법 구분에 대해 이견이 많은 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연결어미 ‘-ㄴ데’를 한 가지 의미로만 제시하고 있으나, 수사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용법을 구분한 이소현(2011)은 ‘-ㄴ데’의 용법을 무려 열일곱 가지로 세분화기도 했다. 이처럼

5) 본고에서 사용된 ‘*’과 ‘?’, ‘??’ 등은 문장의 비문법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접속부사 ‘그런데’가 두 절의 의미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두 절이 만들어 내는 담화가 화용론적으로 부적절함을 나타낸다(박재연 2007:189-195). 예컨대, (4ㄴ)의 ‘날씨가 춥다’와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는 둘 다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절이다. 하지만 두 절의 의미 관계를 만들어 주는 접속 장치로 ‘그런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6) ‘용법명’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로 묶어 표시하기로 한다.

‘-ㄴ데’는 그 쓰임이 폭넓기도 하고 용법을 정확히 구분해 내기도 쉽지 않은 연결어미이다.

접속부사 ‘그런데’는 주로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접속부사는 대체로 연결어미만큼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연결어미 ‘-ㄴ데’에 비해서는 연구가 소략한 편이다. ‘그런데’의 용법은 ‘-ㄴ데’와 유사할 것이라는 통념 때문인지 적극적으로 연구되지 않았고, ‘-ㄴ데’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는 더욱 드물었다.

본고에서는 ‘-ㄴ데’와 ‘그런데’의 의미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기 위해 연결어미 ‘-ㄴ데’의 용법을 기준으로 삼아, ‘그런데’도 ‘-ㄴ데’와 동일한 의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ㄴ데’의 용법 구분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표준국어대사전』은 연결어미 ‘-ㄴ데’를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는 연결어미’라는 한 가지 의미로 기술하고 있다.⁷⁾ 모든 용법을 포괄하여 기술하기 위해서 ‘-ㄴ데’의 의미를 폭넓게 정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화자가 설명이나 질문, 명령, 제안을 하기 위하여 ‘-ㄴ데’를 사용한다는 것은 화용론적인 관점의 정의라고 볼 수 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ㄴ데’를 두 가지 용법으로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뒤 절의 말을 끌어내기 위하여 관련될 만한 사실을 먼저 제시함을 나타내는 말. 흔히 앞 절의 내용을 뒤 절의 내용과 대립되도록 이어 주는 데 쓰인다.’라고 하면서 [배경 제시]와 [대조]를 동일한 용법으로 묶어 기술하고 있다. 역시 화용론적인 관점에 가까운 정의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용법은 ‘뒤 절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원인이나 이유

7)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쓴다고 기술한 것은 좁은 의미로는 [배경 제시]라고 일컫는 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 보면 ‘-ㄴ데’의 모든 용법이 상황이나 배경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를 제시함을 나타낸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간략하게 [이유]의 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는 달리 양명희 외(2018)에서는 '뒤 절에서 서술하거나 질문하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에 앞서서 관련 배경이나 상황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배경 제시]의 용법과 [이유]의 용법을 [배경이나 상황 제시]라는 하나의 용법으로 묶어 기술했다. 그리고 [대조]를 별개의 용법으로 떼 내어서, '-는데'의 용법을 모두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도 [배경이나 상황 제시] 용법은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설명되어 있다.

'-는데'의 용법을 좀 더 세분한 연구들도 있다. 서상규 외(2006)은 '-는데'의 용법을 [원인·이유], [대립], [양보], [질문에 앞선 배경 제시], [시간적 배경 제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⁸⁾ 국립국어원(2005)은 '-는데'의 용법을 '제안이나 명령, 질문에 대한 배경이나 상황을 제시할 때', '뒤에 이어질 구체적인 내용의 전개를 위한 상황을 제시할 때', '뒤의 행동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할 때', 그리고 '대조되는 사실을 말할 때'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역시 대체로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는데'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는데'를 크게 [이유], [대조], [양보], [배경 제시]의 네 가지 용법으로 나누고, '-는데'와 '그런데'를 대조하여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8) 서상규 외(2006)는 형태별로 용법을 조금 달리 구분하여 기술했다. 동사나 '있다, 없다', 선어말어미 '-었-, -겠-'과 결합하는 형태인 '-는데'에서는 [원인·이유], [대립], [양보]와 함께 [시간적 배경 제시]의 용법을 포함시켰고, 형용사와 결합하는 형태인 '-는데', '-은데'에서는 [원인·이유], [대립], [양보]와 함께 [질문에 앞선 배경 제시]의 용법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시간적 배경 제시]의 경우는 그 의미 특성상 대체로 동사와 결합할 때 주로 나타나는 용법으로 볼 수 있겠으나, [질문에 앞선 배경 제시]는 형용사뿐 아니라 동사와 결합할 때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

2.2. ‘-ㄴ데’의 용법과 ‘그런데’로의 환언 가능성

먼저 ‘-ㄴ데’가 [이유]의 용법으로 쓰인 문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 (5) ㄱ. 가격이 비싼데 사은품 좀 많이 주십시오. (고려대 한국어사전)
 ㄴ. 비가 오는데 집에서 쉽시다. (서상규 외 2006:164)⁹⁾

(5ㄱ)은 화자가 ‘사은품 좀 많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물건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가 된다. (5ㄴ)은 화자가 ‘집에서 쉽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비가 오기 때문임을 나타내고 있고, 역시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가 된다.¹⁰⁾ (5)를 ‘그런데’를 사용하여 환언해 보자.

- (5)′ ㄱ.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사은품 좀 많이 주십시오.
 ㄴ. *비가 옵니다. 그런데 집에서 쉽시다.

(5)에서의 ‘-ㄴ데’와는 달리 (5)′에서는 ‘그런데’가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는 선행절을 후행절 발화의 이유로 만들어 주지 못하고, 선행절과 대립되는 사태가 후행절에 나타나도록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5)′의 선행절과 후행절은 서로 대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런데’가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¹¹⁾

9) 이 장에서 제시한 예문들은 기존의 논저에서 가져왔는데, 몇몇 예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연결어미가 나타내는 의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사를 격조사로 바꾸었다.

10) 익명의 심사위원 중 한 분은 이 예문의 ‘-ㄴ데’를 [배경 제시]의 용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일리가 있다고 여겨지나 넓게 보면 ‘-ㄴ데’의 모든 용법이 [배경 제시]로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ㄴ데’ 대신 ‘-니까’를 사용하면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이때의 ‘-ㄴ데’를 [이유]의 용법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이번에는 ‘-ㄴ데’가 [대조]의 용법으로 쓰인 예를 살펴보자.

(6) ㄱ. 방은 추운데 거실은 따뜻해요. (양명희 외 2018:389)

ㄴ. 그 사람은 밥을 잘 먹는데 동생은 안 그래. (국립국어원 2005:239)

(6ㄱ)은 선행절 ‘방은 춥다’라는 사태와 후행절 ‘거실은 따뜻하다’라는 사태가 대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6ㄴ)에서는 선행절 ‘그 사람은 밥을 잘 먹는다’라는 사태와 후행절 ‘동생은 안 그렇다’라는 사태가 서로 대조되고 있다. (6)을 ‘그런데’를 사용하여 환언해 보자.

(6)′ ㄱ. 방은 추워요. 그런데 거실은 따뜻해요.

ㄴ. 그 사람은 밥을 잘 먹어. 그런데 동생은 안 그래.

‘그런데’를 사용하여 두 절을 접속한 (6)′은 (6)과 마찬가지로 [대조]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접속부사 ‘그런데’는 연결어미 ‘-ㄴ데’가 가지고 있는 [대조]의 용법을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양보]의 용법을 살펴보자.

(7) ㄱ. 학교는 넓는데 축구를 할 장소가 없다. (서상규 외 2006:575)

ㄴ. 벌써 겨울이 왔는데 김장을 아직 안 했다. (국립국어원 2005:239)

(7ㄱ)은 학교가 넓기 때문에 축구를 할 장소가 어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달리 장소가 없다는 뜻으로, ‘-ㄴ데’가 [양

11) (5)′에서는 ‘그런데’보다 ‘그러니까’를 사용하는 것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더 분명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 준다. 물론 ‘-ㄴ데’가 나타내는 [이유]는 ‘-으니까’와 ‘그러니까’가 나타내는 것만큼 직접적이지는 않다. ‘-ㄴ데’는 후행절의 이유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비교적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양명희 외(2018)에서는 [이유]를 별개의 용법으로 구분하지 않고 배경이나 상황을 제시하는 용법에 포함시킨 듯하다.

보]의 용법으로 쓰였다. (7ㄴ)은 겨울이 왔으므로 김장을 이미 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대와는 달리 아직 김장을 안 했다는 뜻으로, 역시 [양보]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7)을 ‘그런데’를 사용하여 환언해 보자.

- (7)′ ㄱ. 학교는 넓다. 그런데 축구를 할 장소가 없다.
ㄴ. 벌써 겨울이 왔다. 그런데 김장을 아직 안 했다.

(7)′과 같이 [양보]의 용법으로 사용된 문장에서도 ‘그런데’의 사용이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런데’는 ‘-ㄴ데’가 나타내는 [양보]의 용법을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 준다.¹²⁾

지금부터는 [배경 제시] 용법을 살펴보자. [배경 제시]의 용법은 후행절 사태가 전경(foreground)이 되고 선행절 사태가 배경(background)이 되는 용법과, 후행절 화행의 배경으로 선행절이 제시되는 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8) ㄱ.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표준국어대사전)
ㄴ. 인사동에 갔는데 한국의 전통 물건이 많이 있었어요. (양명희 외 2018:384)

12) 그런데 그동안의 연구를 들여다보면 [양보]와 [대조]는 서로 구분하기 어려운, 혹은 구분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용법으로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 ㄱ. 사장님은 동의하는데 사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ㄴ. 사장님이 동의하는데 사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ㄱ)은 ‘사장님은 동의한다.’라는 사태와 ‘사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사태가 서로 대조되는 의미 관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절 주어에 결합한 조사 ‘은’을 ‘이’로 바꾸면 (ㄴ)과 같이 ‘사장님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사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양보의 의미 관계로 읽히는 듯하다. 따라서 [양보]와 [대조]는 차별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거나, 양보는 대조의 일종으로서 ‘함축적인 대조’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신지연 2004:87 참조).

(8ㄱ)은 선행절 사태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가 후행절 사태 ‘전화벨이 울렸다’의 이유도 아니고,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조되거나 양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지도 않는다. (8ㄱ)은 선행절 사태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가 배경이고, 후행절 사태 ‘전화벨이 울렸다’가 전경임을 나타내고 있다. (8ㄴ) 역시 선행절 ‘인사동에 갔다’라는 사태가 후행절 ‘한국의 전통 물건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태의 배경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8)을 ‘그런데’를 사용하여 환언해 보자.

(8)′ ㄱ.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다.

ㄴ. ?인사동에 갔어요. 그런데 한국의 전통 물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가 사용된 (8ㄱ)′에서는 ‘-ㄴ데’가 사용된 (8ㄱ)과의 의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8ㄴ)′에서는 ‘그런데’가 사용되면서 ‘뜻밖에도’ 한국의 전통 물건이 많았다거나 ‘미리 알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전통 물건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의미가 읽힌다. 이는 ‘-ㄴ데’가 사용된 (8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의미이다. 그렇다면 ‘그런데’는 전경사태인 후행절의 배경을 제시하는 [배경 제시]의 용법을 동일하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보아야 할 것은 [배경 제시] 용법의 설정 기준이 [이유], [대조], [양보] 등 다른 용법을 설정한 기준과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이유], [대조], [양보]는 모두 선행절의 사태와 후행절의 사태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구분된 용법이다. 선행절이 후행절 사태의 이유가 된다면,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조되는 내용이라거나, 후행절이 선행절에서 기대되는 바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 사태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배경 제시]는 (8)과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이 나타내는 사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후행절 화행의 배경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경우도 많다(이은경 2015:353). 앞서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배경 제시] 용법에 대해 기술할 때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로 설명하기 보다는 ‘뒤 절에서 서술하거나 질문하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에 앞서서 관련 배경이나 상황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한다(양명희 외 2018:384).’와 같이 화용론적으로 설명한 경우가 많았다.

‘-ㄴ데’가 나타내는 [배경 제시]는 [이유], [대조], [양보]와 구별되는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ㄴ데’가 나타내는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수도 있다. ‘-는데’와 결합한 선행절을 후행절의 ‘이유’가 되는 배경, ‘대조’되는 배경 등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유], [대조], [양보] 등과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용이한 경우에는 별개의 용법으로 구분하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만을 [배경 제시]의 용법으로 설정한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그동안의 여러 논저들에서 종종 [배경 제시] 용법을 더 세밀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화용론적인 관점에서의 차이를 찾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화행의 배경을 제시하는 [배경 제시]의 용법을 후행절 화행의 종류에 따라 조금 더 세분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 (9) ㄱ. 심심한데 같이 영화를 보러 갈래요? (양명희 외 2018:384)
 ㄴ. 백화점에 가는데 부탁할 게 있으면 해라. (국립국어원 2005:238)
 ㄷ. 우리 집은 주차장이 좀 좁은데, 그곳은 어때요? (서상규 외 2006:575)

(9)는 ‘후행절의 제안이나 명령, 질문에 앞서 선행절에서 배경이나 상황을 제시’하는 예문들이다(국립국어원 2005:238). (9)를 ‘그런데’를 사용하여 환언해 보자.

- (9)′ ㄱ. ??심심해요. 그런데 같이 영화를 보러 갈래요?
 ㄴ. ??백화점에 간다. 그런데 부탁할 게 있으면 해라.
 ㄷ. 우리 집은 주차장이 좀 좁아요. 그런데 그곳은 어때요?

(9ㄱ)에서는 선행절 ‘심심한데’가 후행절 ‘같이 영화를 보러 갈래요?’라는 제안 화행의 배경으로 쓰였는데, (9ㄱ)’과 같이 ‘그런데’를 사용하여 바꾸어 보면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부자연스러워진다. (9ㄴ)도 선행절 ‘백화점에 가는데’가 후행절 ‘부탁할 게 있으면 해라’라는 명령 화행의 배경으로 쓰였는데, (9ㄴ)’과 같이 바꾸면 자연스럽지 못하다. 하지만 선행절 ‘우리 집은 주차장이 좀 좁아요’가 후행절 ‘그곳은 어때요?’라는 질문 화행의 배경이 되는 (9ㄷ)’은 ‘그런데’를 사용해도 그다지 어색하지 않다. 제안 화행이나 명령 화행에 대한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 (9ㄱ, ㄴ)과는 달리, 질문 화행의 배경을 제시하는 (9ㄷ)은 ‘그런데’를 사용하여 바꾸어 보아도 비교적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다.

(10) ㄱ. 지난주에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고로 30여 명이 부상했다.
(국립국어원 2005:239)

ㄴ.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어원 2005:239)

(10)은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거나 어떤 사실을 소개하기 위해 선행절에서 상황을 제시’하는 예문들이다(국립국어원 2005:239). (10)을 ‘그런데’를 사용하여 환언해 보자.

(10)’ ㄱ. 지난주에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 사고로 30여 명이 부상했다.

ㄴ.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잘 부탁드립니다.

(10ㄱ)’에서는 ‘그런데’가 나타내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비교적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10ㄴ)’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선행절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그런데’가 (10ㄴ)에는 없던 대조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데, 그것이 두 절의 의미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¹³⁾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자. 먼저 연결어미 ‘-ㄴ데’가 [대조],

[양보]의 용법으로 쓰인 경우에는 ‘그런데’로 환언해도 그 의미 관계가 비교적 자연스러웠다. 따라서 ‘그런데’는 ‘-ㄴ데’가 나타내는 [대조], [양보]의 의미를 동일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ㄴ데’가 [이유]의 용법으로 쓰인 경우에는 ‘그런데’로 환언하면 의미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했다. [배경 제시]의 용법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그런데’가 사용되어 자연스러운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그런데’는 [이유]의 용법은 나타낼 수 없고, [배경 제시]의 용법 중에서도 일부는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데’는 어떤 성질 때문에 자신의 뿌리인 ‘-ㄴ데’가 나타내는 용법을 모두 나타내지 못하고, 일부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일까? 앞에서 살펴본 예문들을 ‘그런데’의 사용이 자연스러운 것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로 나누어 보자.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 (11) ㄱ. 방은 추워요. 그런데 거실은 따뜻해요. [대조]
 ㄴ. 그 사람은 밥을 잘 먹어. 그런데 동생은 안 그래. [대조]
 ㄷ. 학교는 넓다. 그런데 축구를 할 장소가 없다. [양보]
 ㄹ. 벌써 겨울이 왔다. 그런데 김장을 아직 안 했다. [양보]
 ㅁ.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다. [배경 제시]
 ㅂ. 우리 집은 주차장이 좀 좁아요. 그런데 그곳은 어때요? [배경 제시]
 ㅅ. 지난주에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 사고로 30여 명이 부상했다. [배경 제시]

- (12) ㄱ.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사은품 좀 많이 주십시오. [이유]
 ㄴ. *비가 옵니다. 그런데 집에서 쉽시다. [이유]
 ㄷ. ?인사동에 갔어요. 그런데 한국의 전통 물건이 많이 있었어요. [배경

-
- 13) 윤옥선·박동호(2020)는 (10ㄱ)과 (10ㄴ)을 각각 ‘설명’과 ‘도입’이라는 별개의 용법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절에 나타난 어떤 대상에 대해 후행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10ㄱ)과 같은 ‘설명’의 용법이고, 선행절의 사태가 후행절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10ㄴ)과 같은 ‘도입’ 용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용법 구분 역시 화용론적인 차이에 의한 구분이다.

제시]

ㄱ. ??심심해요. 그런데 같이 영화를 보러 갈래요? [배경 제시]

ㄴ. ??백화점에 간다. 그런데 부탁할 게 있으면 해라. [배경 제시]

ㄷ.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잘 부탁드립니다. [배경 제시]

(11)은 ‘그런데’의 사용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문장들이고 (12)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문장들이다. (11)의 문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공통되는 특징이 발견된다. 선행절의 사태와 비교해 볼 때, ‘그런데’로 접속된 후행절의 사태에서 ‘국면의 전환’¹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1ㄱ~ㄴ)의 [대조]와 [양보]는 용법의 이름만 보아도 선행절과는 다른 국면이 후행절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ㄱ)에서 ‘방은 춥’지만 거실은 방과는 다른 국면이다. (11ㄴ)에서 ‘그 사람은 밥을 잘 먹’지만 동생은 그 사람과는 다른 국면을 보인다. (11ㄷ)에서 ‘학교는 넓’지만 축구할 장소를 찾는 사람에게는 다른 국면으로 느껴진다. (11ㄷ)에서는 ‘벌써 김장을 해야 하는 겨울이 왔’지만 기대와는 달리 후행절의 국면에서는 ‘김장을 아직 안 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배경 제시]의 용법인 (11ㄴ~ㄷ)에서도 후행절의 사태에서 국면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ㄴ)에서는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태의 와중에 ‘전화벨이 울리’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면이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11ㄷ)은 ‘우리 집은 주차장이 좀 좁다’라는 사태를 언급한 후에 우리 집이 아닌 ‘그곳’의 사정은 어떠한지 질문을 함으로써 국면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11ㄷ)은 선행절 ‘지난주에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다’에서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을 한 후에, 후행절 ‘그 사고로 30여 명이 부상했다’에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서술하는 것으로 국면의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¹⁵⁾

14) 본고에서 말하는 ‘국면의 전환’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이어질 때 성질이나 형편, 형세 등이 달라지거나 사태가 나타내는 장면이 바뀌는 등, 사태의 내용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에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15) (11ㄷ)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에서 나타나는 국면의 전환은 마치 렌즈를

반면, ‘그런데’의 사용이 자연스럽지 못한 (12)는 후행절에서 국면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12ㄱ)은 ‘가격이 비싸다’는 사실이 ‘사은품 좀 많이 주십시오’라는 화행의 이유가 된다. 따라서 선행절과 후행절은 ‘이유’와 그에 따른 ‘결과’라는 순조로운 논리의 흐름에 따라 이어지므로 국면이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역시 [이유]의 용법으로 쓰인 (12ㄴ)도 마찬가지로 국면의 전환은 보이지 않는다. (12ㄷ)과 (12ㄹ)의 선행절 ‘심심해요’와 ‘백화점에 간다’는 후행절의 화행 ‘영화를 보러 갈래요?’와 ‘부탁할 게 있으면 해라’를 국면의 전환 없이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는 배경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국면 전환은 화용론적인 문제이자 두 절의 의미 관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 문제이다. 그러므로 문맥에 따라, 그리고 화자가 어떠한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의미 관계의 적절성은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다.

- (13) ㄱ. 비가 오는데 집에서 쉽시다.
 ㄴ. 비가 옵니다. 그런데 집에서 쉽시다.

- (14) ㄱ. 인사동에 갔는데 한국의 전통 물건이 많이 있었어요.
 ㄴ. 인사동에 갔어요. 그런데 한국의 전통 물건이 많이 있었어요.

(13)과 (14)는 (12)에서 ‘그런데’로의 환언이 불가능하거나 어색한 것으로 분류했던 예문들이다. 비가 올 때는 밖에 나가서 불편을 겪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것이 낫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ㄴ데’가 사용된 (13ㄱ)이 적절한 문장으로 느껴지고, ‘그런데’가 사용된 (13ㄴ)은 적절하지 못한 문장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비가 올 때마다 지하철 역 앞에서 우산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런데’가 사용된 (13ㄴ)이 두 절의 의미 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낸 문장으로 느껴지고,

통하여 어떤 장면을 훑아웃해서 보다가, 줌인해서 세부적인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장면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ㄱ)은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한 문장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비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우산을 팔러 나가야 하는데, (13ㄱ)과 같이 ‘비가 오니까 쉬’자는 말을 들으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인사동에 한국 전통 물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14ㄱ)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14ㄴ)은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인사동에 대한 그러한 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인사동에 한국 전통 물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새로운 발견일 수 있다. 따라서 (14ㄴ)에서 나타나는 국면의 전환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화자와 청자의 사태에 대한 지식과 관점에 따라, 연결어미와 접속부사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부자연스러움’이나 ‘부적절함’은 화용론적인 판단이므로 특수한 맥락이 제공된다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런데’의 사용 가능성은 화자가 후행절에서 국면의 전환을 의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연결어미 ‘-ㄴ데’는 국면의 전환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선행절과 후행절을 자연스럽게 이어 줄 수 있는 데 비해, 접속부사 ‘그런데’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에서 국면의 전환이 일어날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ㄴ데’와 ‘그런데’의 접속의 영역에 따른 사용 양상 대조

이 장에서는 ‘-ㄴ데’와 ‘그런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접속의 영역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Sweetser(1990)은 단어의 의미가 물리적인 영역에서 추상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영어의 접속사 역시 내용 영역(content domain)에서의 접속에서 인식 영역(epistemic domain)과 화행 영역(speech act domain)에서의 접속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했다. 한국어에서 절과 절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연결어미와

접속부사도 의미 확장의 과정을 거쳐 위의 세 가지 영역에서의 접속으로 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ㄴ데’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행절과 후행절 사태의 내용을 이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선행절이 후행절의 화행과 관련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접속의 영역에 따라 ‘-ㄴ데’와 ‘그런데’가 나타내는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ㄴ데’와 ‘그런데’가 사용된 문장들을 세 가지 접속 영역으로 구분해 보자.

- (15) ㄱ. 결승전이 한창 진행 중인데 어디선가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다.
 ㄴ. 내일이 납품일인데 오늘 모두 야근해야 하는 거 아니야?
 ㄷ. 초면에 죄송한데 커피 한잔 하실래요?

(15ㄱ)은 선행절이 후행절의 시간적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행절 ‘결승전이 한창 진행 중이다’가 후행절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내용’에 대한 배경을 나타내므로 내용 영역에서의 접속이라고 볼 수 있다. (15ㄴ)은 후행절 ‘오늘 모두 야근해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판단의 근거가 선행절 ‘내일이 납품일이다’라는 사태임을 나타낸다. 선행절이 후행절에 나타나 있는 판단, 즉 ‘인식’에 대한 근거이므로 인식 영역에서의 접속이라고 볼 수 있다. (15ㄷ)은 ‘커피 한잔 하실래요?’라는 제안을 하기 위해 ‘초면에 죄송한데’라는 말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고 있다. 선행절이 후행절에 나타나 있는 ‘화행’의 바탕이 되므로 화행 영역에서의 접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절과 절이 어떤 영역에서 접속하는가 하는 문제가 ‘-ㄴ데’와 ‘그런데’의 의미 기능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 (16) ㄱ. 형은 사과를 좋아하는데 동생은 딸기를 좋아해요.
 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불합격했다.
 ㄷ.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6)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내용 영역에서 접속된 문장들이다. (16ㄱ)은 [대조], (16ㄴ)은 [양보], (16ㄷ)은 [배경 제시]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그런데’를 사용하여 환언해 보자.

- (16)′ ㄱ. 형은 사과를 좋아해요. 그런데 동생은 딸기를 좋아해요.
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다. 그런데 불합격했다.
ㄷ.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문장 모두 ‘그런데’를 사용해도 자연스럽다. (16ㄱ)과 같이 ‘-ㄴ데’가 [대조]의 용법으로 사용될 때는 대부분 내용 영역에서의 접속인 것으로 보인다.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통의 주제, 혹은 공통의 기준에 대해서 선행절과 후행절이 서로 대조되는 서술이어야 한다. (16ㄱ)의 선·후행절 사태는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 즉 선호도에 관한 서술이다. 선행절에는 ‘형은 사과를’ 좋아한다는 사태가, 후행절에는 ‘동생은 딸기를’ 좋아한다는 사태가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 대조되는 내용이다. [대조]의 용법으로 쓰인 경우는 대부분 내용 영역에서 접속된다.

[양보]의 용법은 선행절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후행절의 사태가 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이 역시 내용 영역에서의 접속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행절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후행절의 ‘판단’을 내렸음을 나타내는 경우라면 인식 영역에서의 접속으로 볼 수도 있다.

- (17) ㄱ. 비가 내리는데 우산이 없다.
ㄴ.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17ㄱ)은 ‘비가 내리는’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화자에게 ‘우산이 없’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내용 영역에서의 접속의 예다. 그런데 (17ㄴ)은 ‘비가 내리는’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살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므로 인식 영역에서의 접속에 가깝다. [양보]의 용법에서는 내용

영역이 아닌 인식 영역에서의 접속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처럼 [양보]의 용법이 인식 영역에서의 접속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양보]의 용법이 아니더라도 ‘-ㄴ데’가 인식 영역에서 접속한 것이 분명한 예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 (18) ㄱ. 비가 오는데 우산 좀 빌려주세요.
 ㄴ. 비가 오는데 우산 좀 같이 쓸까요?
 ㄷ. 내일이 결혼기념일인데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

(18)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화행 영역에서 접속된 문장들이다. 화행 영역에서의 접속은 주로 [이유]의 용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ㄱ)에서는 ‘우산 좀 빌려주세요’라는 명령 화행에 앞서 선행절 ‘비가 오는데’로 그 이유를 말하고 있고, (18ㄴ)에서는 ‘우산 좀 같이 쓸까요?’라는 제안 화행에 앞서 ‘비가 오는데’로 그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이유]의 용법보다는 [배경 제시] 용법에 가까워 보이는 (18ㄷ)은 선행절 ‘내일이 결혼기념일인데’가 후행절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라는 질문 화행의 이유가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선행절이 후행절 질문 화행을 하게 된 근거라고는 볼 수 있다. (18)을 ‘그런데’를 사용하여 환언해 보자.

- (18)′ ㄱ. ??비가 와요. 그런데 우산 좀 빌려주세요.
 ㄴ. ??비가 와요. 그런데 우산 좀 같이 쓸까요?
 ㄷ. 내일이 결혼기념일이야. 그런데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

(18ㄱ, ㄴ)′은 ‘그런데’를 사용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후행절이 명령 화행이나 제안 화행일 때는 ‘-ㄴ데’를 사용한 (18ㄱ, 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행절에 나타나는 이유와 후행절의 화행이 논리적으로 순조로워야 한다. 명령(부탁) 또는 제안과 그에 대한 이유가 논리적 연관성을 갖추지 않으면 청자를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행절이 명령

화행이나 제안 화행일 때는 국면의 전환을 일으키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18ㄷ)과 같은 질문 화행의 경우에는 질문에 대한 논리가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8ㄷ)’과 같이 국면의 전환을 나타내는 ‘그런데’가 사용되어도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는 비교적 적절하게 느껴지는 것이다.¹⁶⁾

정리하면, ‘-ㄴ 데’는 화행 영역에서 접속할 때 선행절이 후행절 화행의 근거가 되는 배경임을 나타내는데, 후행절 화행이 명령 화행이나 제안 화행일 때는 ‘그런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지만 질문 화행일 때는 ‘그런데’를 사용해도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4. 결론

본고에서 우리는 연결어미 ‘-ㄴ 데’와 접속부사 ‘그런데’가 나타내는 의미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ㄴ 데’와 ‘그런데’의 사용 양상 대조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기존의 연구에서 ‘-ㄴ 데’의 용법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ㄴ 데’를 [이유], [대조], [양보], [배경 제시]의 네 가지 용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용법별 예문을 ‘그런데’를 사용하여 환언해 보면서, 용법에 따라 ‘-ㄴ 데’와 ‘그런데’가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았다.

16) ‘그런데’가 쓰인 (18ㄷ)’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ㄴ 데’가 쓰인 (18ㄷ)과 완전히 같은 의미라는 것은 아니다. (18ㄷ)에서는 국면 전환의 의미가 거의 읽히지 않지만 (18ㄷ)’에서는 국면 전환의 의미가 읽힌다는 차이가 있다.

17) 앞서 누차 언급했듯이, 연결어미와 접속부사 사용의 적절성은 화용론적인 문제이다. ‘맞다/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하다/부적절하다’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대한 화·청자의 지식과 관점에 따라 다른 맥락이 제공된다면 적절성의 판단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한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의 문제이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ㄴ 데’와 ‘그런데’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 [대조]와 [양보]의 용법에서는 ‘-ㄴ데’를 사용한 문장과 ‘그런데’를 사용하여 환언한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유]의 용법에서는 ‘-ㄴ데’를 ‘그런데’로 바꾸면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경 제시]의 용법에서는 ‘그런데’의 사용이 자연스러운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모두 나타났는데, 이는 [배경 제시]의 용법 설정 기준이 다른 용법과는 다르고, 이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나타내는 접속의 양상도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를 사용했을 때 부자연스러운 문장들은 대체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에서 국면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는 ‘-ㄴ데’와는 달리 국면의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조]와 [양보]의 용법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었지만, [이유]의 용법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접속의 영역의 관점에서 보면 ‘-ㄴ데’가 내용 영역에서 접속될 때는 대부분 ‘그런데’를 사용해도 자연스러웠지만, ‘화행 영역’에서 접속될 때는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도 나타났다. 특히 후행절이 명령 화행이나 제안 화행일 경우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논리적으로 순조로워야 하기 때문에, 국면의 전환을 일으키는 ‘그런데’가 사용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후행절이 질문 화행일 때는 ‘그런데’의 사용이 비교적 자연스러웠다.

본고에서는 연결어미 ‘-ㄴ데’와 접속부사 ‘그런데’를 ‘용법’과 ‘접속의 영역’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펴봄으로써 둘 사이에 문법성이나 적절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모든 연결어미와 접속부사에 일반화될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으므로, 다른 연결어미와 접속부사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 살펴본 것 외에 연결어미와 접속부사의 의미 차이를 만들어 내는 다른 요인은 없는지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ㄴ데’와 ‘그런데’의 사용 양상을 문장 단위에서만 비교해 보았는데, 접속부사는 연결어미와는 달리 문장 단위뿐 아니라 담화 단위

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담화표지이므로 담화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화·이현정·남신혜·장채린·홍연정·김강희(2016), 『한국어교육 문법』, 한글파크.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미선(1996), 「접속부사(接續副詞) 연구(研究)(I) -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를 중심(中心)으로-」, 『어문연구』 24-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92~106쪽.
- 김미선(1998), 「접속부사(接續副詞) 연구(研究)(II) -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를 중심(中心)으로-」, 『어문연구』 26-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18~131쪽.
- 김미선(2012), 「‘그런데’의 담화 기능 연구」, 『인문과학연구』 34,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5~54쪽.
- 김수정(2019), 「접속 영역에 따른 배경 접속문의 유형과 특성」, 『언어학』 84,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55~272쪽.
- 김인환(2018), 「‘그러-’ 계열 접속부사의 세 가지 영역 -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를 중심으로」, 『어문학』 139, 한국어문학회, 21~49쪽.
- 박재연(2007), 「문법 형식의 의미 기술과 통사론·의미론·화용론」,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181~206쪽.
- 박재연(2011),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기술의 메타언어 연구 - ‘양보, 설명, 발견’의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국어학』 62, 국어학회, 167~197쪽.
- 박재연(2014),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확장에서의 환유와 은유」, 『국어학』 70, 국어학회, 117~155쪽.
- 서상규·백봉자·강현화·김홍범·남길임·유현경·정희정·한송화(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신원프라임.
- 신지연(2004), 「대립과 양보 접속어미의 범주화」, 『어문학』 84, 한국어문학회, 75~98쪽.

- 신지연(2005), 「접속부사 ‘그러나’의 의미」, 『한국어 의미학』 18, 한국어의미학회, 23~48쪽.
- 안주호(2000), 「‘그러-’ 계열 접속사의 형성과정과 문법화」, 『국어학』 35, 국어학회, 113~141쪽.
- 양명희·이선웅·안경화·김재욱·정선화·유해준(201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 집문당.
- 윤옥선·박동호(2020), 「한국어 연결어미 ‘-는데’의 용법과 특징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85~320쪽.
- 윤평현(1996), 「국어의 상황관계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43, 한국언어학회, 603~625쪽.
- 이금영(2016), 「“그러-/그리-” 계열 접속 부사의 통시적 고찰」, 『인문학연구』 10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15~247쪽.
- 이소현(2011), 「구어에 나타나는 한국어 연결어미 “-는데”의 의미 연구 -수사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22-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73~297쪽.
- 이원표(1999), 「인과관계 접속표현」, 『언어』 24-1, 한국언어학회, 123~158쪽.
- 이은경(2015), 「한국어 연결 어미의 의미 기술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3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33~359쪽.
- 이희정(2021), 「한국어교육을 위한 연결어미 ‘-는데’의 의미 연구」, 『문화와 융합』 43-2, 한국문화융합학회, 417~436쪽.
- 장기열(2003), 「국어 접속부사의 특성과 그 기능」, 『복지행정연구』 19,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75~194쪽.
- 전영옥·남길임(2005), 「구어와 문어의 접속 표현 비교 연구- ‘그런데, -는데’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17, 한말연구학회, 169~194쪽.
- 주향아(2019), 「접속부사 ‘그리고’와 접속어미 ‘-고’의 의미 비교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4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467~494쪽.
- Sweetser, E.(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오재연

✽ 소 속: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 주 소: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외국어대학관

『우리말글』 제93집 우리말글학회 (2022.06.30.)

✽ 전자우편: eyeon5j@khu.ac.kr

☐ 이선웅

✽ 소 속: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 주 소: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외국어대학관 232호

✽ 전자우편: anhhung@khu.ac.kr

◎ 논문접수: 2022년 5월 29일

◎ 논문심사: 2022년 6월 17일

◎ 게재결정: 2022년 6월 28일

<Abstract>

A contrastive study of connective ending ‘-eunde’ and connective adverb ‘geureonde’

Oh, Jae-youn · Yi, Seon-ung

(Kyung He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meaning of sentences connected by the connective ending, ‘-eunde’ and the connective adverb, ‘geureonde’ based on the usages and conjunction domain, and to examin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meanings.

Firstly, the usage of ‘-eunde’ was divided into ‘reason’, ‘contrast’, ‘concession’, and ‘background presentation’, and the sentences used in each usage are changed into two sentences using ‘geureonde’. As a result, some differences between ‘-eunde’ and ‘geureonde’ were revealed in some usages.

Secondly, referring to Sweetser(1990) we divided the sentences connected by ‘-eunde’ into the connection in the content domain, the epistemic domain and the speech-act domain, and changed the sentences connected in each area into two sentences using ‘geureonde’. As a result, it was natural in the content domain, but it was often unnatural in the speech-act domain.

Keywords: connective ending, conjunction, ‘-eunde’, ‘geureonde’, usages, conjunction domain, turn of events